



도로 위 데이터를 시로 연결하다 AI 에이전트 기반 풀스택 플랫폼 기업 엠큐닉(MQNIC)

엠큐닉(MQNIC)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언어·지식 AI와 비전 AI(VLM), 그리고 AI 운영 자동화(AIOps)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AI 전문기업이다.

엠큐닉은 단순 AI 모델 공급을 넘어, AI 구축·평가·운영·개선까지 연결되는 Full-Stack AI 플랫폼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전환(AX)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온프레미스 기반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가능한 한국형 엔터프라이즈 LLM 플랫폼, 자연어 기반 실시간 영상 이해가 가능한 VLM 플랫폼, 그리고 운영 자동화 중심의 AIOps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운영 전주기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또한 ITS·자율주행·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축적한 현장 경험과 Domain AI 역량을 기반으로 MaaS부터 자율주행 운영관제까지 연결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엠큐닉은 Microsoft Bing 지도플랫폼, BMW RTTI 및 커넥티드 카서비스, Tesla 맵 콘텐츠 서비스, Apple 맵 플랫폼 구축·운영 경험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역량을 축적해 왔다.

“ 미래 경쟁력은 데이터를 스스로 이해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시에 달려 있습니다. ”

- 엠큐닉 유승모 대표



엠큐닉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항 및 대규모 ITS 인프라 사업 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단순 시스템 구축 기업을 넘어 “AI 기반 미래 도시 운영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엠큐닉은 ‘2026 Emerging AI+X Top100’에 5년 연속 선정되며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11일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인공지능산업대상’에서 협회장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국내 AI·모빌리티 산업 내 기술 혁신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엠큐닉은 앞으로 AI 에이전트와 Domain AI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도시와 산업 운영 환경 전체를 혁신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ITS·모빌리티 사업을 넘어, LLM·VLM·AIOps 기반의 풀스택 AI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엠큐닉은 ITS와 자율주행, 교통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 환경은 단순 시스템 구축 중심에서 AI 기반 업무 혁신과 운영 자동화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AI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Mobility Domain 역량과 AI 기술을 융합하여 LLM, VLM, AIOps 기반의 Full-Stack AI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 AI 모델 공급이 아니라, 구축·평가·운영·개선까지 연결되는 End-to-End AI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폐쇄망(On-Premise) 기반 AI 운영 환경과 AI 운영 자동화(AIOps)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Mobility를 넘어 다양한 산업 영역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AI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엠큐닉이 구축 중인 한국형 엔터프라이즈 LLM 플랫폼은 기존 생성형 AI 서비스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최근 생성형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과 공공기관 환경에서는 보안성과 운영 안정성, 품질 검증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엠큐닉의 LLM 플랫폼은 단순 챗봇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한국형 AI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온프레미스 기반 폐쇄망 환경 지원을 통해 민감 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PDF, HWP, HWPX, PPTX, XLSX 등 국내 업무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문서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검색과 응답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구축 이후 운영·평가 체계까지 포함한 End-to-End 플랫폼 구조를 제공하여 환각(Hallucination) 제어와 품질 개선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 모듈형 도구로 구성된 End-to-End LLM 플랫폼

<p>01</p> <p>DocLayoutBuilder 파일-정형-Q&A 자동생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DF, DOCX, HWP/HWPX 등 문서를 네이티브 파일 Q&A SET 자동 생성 	<p>02</p> <p>RAGBuilder 비주요 워크플로우 빌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워크플로우로 챗-에이전트를 구축 하이브리드 검색 제공 	<p>03</p> <p>LableBuilder 멀티모달 데이터 어노테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스트, 이미지, 표, 음성, 영상 등 멀티모달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지원 AI 학습 데이터 자체 구축 	<p>04</p> <p>BenchKit LLM 모델 벤치마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객관적 모델 선정과 다중 분석 제공 	<p>05</p> <p>EvaKit RAG 성능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 정밀도(Citation 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측정하여 RAG 성능 정량 평가
---	---	--	--	--

<p></p> <p>문서 인식·적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DF·XLSX·PPTX·PNG 등 문서 유형 기반 인식 시험 조건 기준 OCR 인식 정확도 94.69% 문서내 텍스트를 검색 가능한 지식데이터로 전환 	<p></p> <p>근거 문서 기반 검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조건 기준 문서 검색 성공률 99% 문서 검색 평균 반환 시간 4.15초 답변에 활용된 근거 문서 제공 구조 	<p></p> <p>질의응답 생성 A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조건 기준 질의응답 정확도 93% 평균 첫 토큰 반환 시간 4.87초 근거 기반 답변으로 신뢰성 확보 지원 	<p></p> <p>품질평가·개선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0건 평가 기준 품질수용률 96.1% 123건 개선 항목 완료 사례 검색 실패-데이터 미착재 오류 유형 분석
--	--	--	--

한국형 엔터프라이즈 LLM 플랫폼

VLM(Visual Language Model) 기반 영상 AI 플랫폼이 기존 영상관제 시스템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영상관제 시스템은 대부분 사전에 정의된 객체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동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나 객체를 추가하려면 별도의 모델 재학습과 개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엠큐닉의 VLM 플랫폼은 자연어 기반 Zero-shot 구조를 적용하여, 별도의 재학습 없이도 신규 객체-상황-이벤트를 즉시 탐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운영자가 자연어로 “역주행 차량 탐지”, “안전장비 미착용 탐지”, “특정 행동 패턴 검색” 등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즉시 이해하고 실시간 관제와 영상 검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실시간 관제와 사후 영상 검색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엠큐닉은 이를 하나의 운영 흐름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공공안전·산업안전·미디어 분야 등 다양한 도메인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Vertical AI 구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폐쇄망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On-Premise 기반 VLM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VLM 기술이 단순 영상 분석을 넘어 “현장을 이해하는 AI 운영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AIOps 플랫폼을 통해 ‘운영 자동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운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AI 서비스가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모델 성능보다 “운영 안정성”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체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엠큐닉의 AIOps 플랫폼은 관측 → 분석 → 판단 → 조치 → 학습 → 재운영으로 이어지는 Full Closed-Loop 기반의 자율 운영 체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p>01 실시간 관측</p> <p>로그, 모델응답, 사용자 피드백 (VOC), 시스템 등 통합 메트릭 수집</p>	<p>02 이상탐지 및 드리프트 감지</p> <p>데이터 드리프트, 모델 성능 변화 등을 자동 감지하며 선제 대응 지원</p>	<p>03 지능형 분석& 최적화</p> <p>AI 기반 상관분석 및 RCA 자동화에 따른 최적화 추천으로 개선된 의사결정 체계 운영</p>	<p>04 자동 대응 및 학습</p> <p>검증된 파이프라인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모델 개선-배포 운영 데이터 학습 데이터 셋 자산화</p>	<p>05 재운영</p> <p>자동 회귀 평가 게이트를 통해 학습 품질 보장 및 ROI 지속개선</p>
--	--	---	---	---

엠큐닉의 AIOps 플랫폼 운영체계

특히 기존 운영 환경이 장애 발생 이후 사람이 로그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엠큐닉은 AI 기반 상관분석과 자동화된 운영 체계를 통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자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드리프트와 모델 성능 저하를 자동 감지하고,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된 MLOps 체계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 리스크와 인프라 비용은 줄이고,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안정성은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AIOps가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AI가 스스로 운영을 개선하는 자율형 운영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엠큐닉이 생각하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은 단순 MaaS를 넘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은 단순 이동 서비스 연결을 넘어,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운영하는 AI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엠큐닉은 MaaS(Mobility as a Service)부터 자율주행 운영관제까지 연결 가능한 미래 수요 대응형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운송수단과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통합하여 AI 기반 교통 흐름 분석, 수요 예측, 신호 최적화, 돌발 상황 대응 등이 가능한 지능형 플랫폼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교차로 신호 최적화, 역주행 탐지 및 자동 대응, 자율주행 운영관제 플랫폼 등 실제 현장 중심의 AI 서비스 플랫폼도 함께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도시와 서비스, 인프라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AI 기반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01

모빌리티 기반
AI 서비스 플랫폼

교통 정체 및 돌발 사고 등 교통 현안을 AI 딥러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AI 서비스 플랫폼



02

미래교통수요대응형
중계 플랫폼

운송 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MaaS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대응 가능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 중계 플랫폼



03

통합 아키텍처 기반
교통 운영/관제 플랫폼

이기종 시스템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대용량 장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자율협력주행 및 교통 인프라를 운영관제 하는 통합 플랫폼



미래 교통수요 대응을 위한 도메인 중심 AI 플랫폼 개념

2년 연속 '청년 친화 강소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엠큐닉이 추구하는 핵심 인재상과 혁신을 이끌어 내는 특별한 조직문화를 소개해 주세요.

엠큐닉은 AI와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기반 기술과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회사이지만, 결국 기술도 사람의 협업과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엠큐닉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사람 중심의 성장'과 'AI를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실천 중입니다. 많은 임직원들이 장기근속 포상을 받았고, 회사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함께 시간을 쌓아온 구성원들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을 받은 임직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엠큐닉은 사내 AI 경진대회(좌)와 AI 세미나(우)를 개최하는 등 구성원들의 AI 역량 강화와 업무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부여하며, 회사의 성장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엠큐닉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 기술과 비즈니스를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 빠르게 실행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자연스럽게 융합된 협업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Jira, Confluence, Slack, Google Drive 등 다양한 디지털 협업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 사업관리, 기술 협업, 문서 자산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빠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 밴드 활동, 사내 동호회, 산행, 푸드트럭 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구성원 간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기반 업무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보고서 작성, 데이터 자동 분석, 회의록 자동화, 디지털 문서 통합 관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반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도 사람 중심 조직문화와 AI 기반 업무 혁신을 함께 발전시키며,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성장하는 조직”, 그리고 AI를 통해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미래형 기업 문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AI 전환(AI)이 산업 전반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최근 AI 산업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실제 업무와 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단순 AI 솔루션 공급 기업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혁신과 운영 혁신을 함께 지원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특히 LLM, VLM, AIOps, Domain AI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구축부터 운영, 개선까지 연결되는 Full-Stack AI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엠큐닉의 핵심 방향입니다. 또한 Mobility Domain에서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교통·공공안전·산업안전·도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AI 전환(AI)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데이터를 연결해 도시의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

그것이 엠큐닉이 만들어 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AI·자율주행·디지털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도시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2026 엠큐닉 리더 워크숍'에서 임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